

불교 테마파크 조성 '붐'

군위 인각사·통영 연화사·양산 통도사 등 해당 지자체서 '적극'

군위 인각사, 통영 연화사, 양산 통도사 등지의 불교문화 중심지로 불교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장기계획이 속속 발표되면서 불교 테마파크 관광지가 개발 붐이 일고 있다.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곳으로 유명한 경북 군위 인각사 일대 2만1천500평 부지에 조성될 '일연 테마파크'는 경북도와 군위군에 의해 적극 추진되고 있는 장기 사업. 총사업비 150억원을 들여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일연 테마파크는 인각사의 역사적 재조명과 체계적 정비·복원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현재 화북읍 건설과 관련 주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인각사 주변 정비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다 국비, 지방비 등의 예산도 매년 5억~10억 책정돼 있어 인각사를 중심으로 한 테마파크 조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편이다.

일연 테마파크는 대웅전, 국사전, 승방, 일연학연구소 등의 전통사찰 공간을 중심으로 두고 편의시설, 교양학습공간, 휴식공간 등이 가장자리에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교양학습공간은 수련원·유물전시관 및 영

상매체관, 도예체험장, 노천강당, 보각국사상 등으로 2개소에 분산·배치된다.

또한 통영 연화도 연화사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연화도 불교테마공원 조성 계획도 눈길을 끈다. 통영시는 2010년까지 138억원을 들여 육지연 연화도 1만여㎡에 불교테마공원을 조성하기로 장기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연화도 연화사 주변에 조성되는 불교테마공원은 극락, 인간세계, 지옥세계를 상징하는 공간을 해수관음상 둘레에 조성하고 상봉으로 오르는 연화도에는 부처님 일대기 테마 조각공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연화도인 토굴터를 복원해서 동상을 모시고 그 옆에는 사명대사 토굴터도 복원해서 사명대사 동상도 모시게 된다. 이 밖에도 불교의식 체험장, 부처님 상, 불상상, 상징광장과 전망대 등으로 꾸며진다. 이는 최근 연화사를 찾는 기도객들이 급증하자 통영시도 연화도 불교테마공원이 관광수입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연화도 불교테마공원의 경우, 사업비 확보를 위한 투융자 심사 과정을 남겨놓은 상태로 아직은 예

산화복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사업의 현실화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불교문화 중심 테마로 하는 테마공원 조성은 포교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자칫 불교 성지의 관광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는 '통도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관광특구 지정'도 예산확보 불투명, 불교 성지의 관광지화라는 지적 속에 표류하고 있어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군위 인각사 주지 상인 스님은 "사찰을 중심으로 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 단순관광지로 전락해 버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단순히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수립 여부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수립 후 불교성지에 맞는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다방면의 프로젝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부산 두송복지관과 키르키즈스탄 부산시민서포터즈 회원들은 7월 17일 두송복지관에서 독거노인, 장애인 등 300여 지역민들에게 무료진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오늘은 복지관 아닌 종합병원"

두송복지관, 주민 위한 무료진료

7월 17일, 부산 두송복지관(관장 지현)에 일일 종합병원이 개원했다.

두송복지관과 키르키즈스탄 부산시민서포터즈 회원이 함께 인근 주민들을 위한 무료 진료를 실시한 것이다. 이날 의료 봉사에는 H.P.P의료봉사단을 주축으로 구성된 의료봉사팀의 의사 간호사 봉사자들이 참여했으며 독거노인, 장애인 등 300여 명의 지역민들이 안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15개과의 무료진료를 이용했다.

두송복지관 무료진료는 2003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저

'귀신 잡는 해병' 근원지 낮 기리는 집 세운다

통영 두타사 '해병혼의 집' 건립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말이 생겨게 된 근원지인 통영 무전동 원문전적지에 한국전쟁 통영상륙작전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기리는 해병혼의 집이 건립된다.

통영 두타사(주지 자음)와 통영해병전우회(회장 조영규)는 8월 17일 55주년 통영상륙작전 기념행사를 즈음해 해병혼의 집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갖고 해병대 영령들의 낮을 위로하는 위령제와 전도제도 함께 봉행한다.

통영상륙작전에서 희생된 영가들의 위패를 봉안하는 해병혼의 집은 통영 용남면 삼화리 두타사에 30평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통영상륙작전에서 희생된 영가들의 명단을 받아 모시게 된다. 해병혼의 집은 내년 낙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낙성식과 더불어 제2회 위령제와 희생영령들의 나라사랑을 기리는 부대행사도 구상 중이다. (055)648-1477

천미희 기자



한여름밤의 음악법회

21세기 불교수행공동체 백장선원(이사장 원구 스님)이 주관한 한여름 밤의 음악법회가 7월 16일 1000여명의 불자들이 모인 가운데 대구 허브언덕에서 개최됐다. 마하아나합창단과 서봉사, 성화사 합창단의 찬불가, 시명 스님과 가수 이동원, 무형문화재 제45호 김경애 선생 등이 출연했다.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의 어린이들은 최광철씨의 색소폰 연주에 맞춰 반야심경을 북돋아 여름밤 허브언덕을 장엄하며 눈길을 끌었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통도사 IC 불보종찰 이미지 반영을"

양산시의회 도로공사에 요청

양산시의회가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말까지 이전 건립하게 되는 경부고속도로 통도사 IC를 불보종찰인 통도사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조형물로 설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양산 IC도 양산의 지역특성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조형물을 설치해 달라고 7월 14일 건의문을 제출했다. 양산시의회는 "양산과 통도사 등 2곳의

특이점은 시의 관문인 만큼 양산불게이트에는 관광·문화·교육도시라는 이미지를, 통도사불게이트는 불교관광지라는 특성을 각각 부각시킬 수 있도록 꾸며져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해 한국도로공사에 전달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2005년 말까지 경부고속도로 부산-언양간 37.83km구간을 기존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면서 기존 양산과 통도사 불게이트도 이전할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창립 1주년 기념법회 봉행

대불련 대구경북동문회

대불련 대구경북동문회(회장 임해수)가 창립 1주년을 맞아 7월 15일 대구 보현사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동문회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임해수 회장은 "창립 1주년을 맞아 참회와 더불어 대본심, 대의심을 내고 크게 발전해 동문회 발전을 위해 매진해주시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회 후 '동문회 발전을 위한 기본과제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념발제에서는 수행, 포교, 재정 등 다방면에서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이수찬 동문회 조직위원장은 동문연계를 위한 인맥지도를 작성과 리더십 있는 핵심 인적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안미정 재정위원장은 고정적 회비수납과 기금마련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발제에서는 대학생 포교사 정활영, 이마음 서비스, 주방갈 연마, 전자제품 수리 등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다양한 봉사활동들이 호응을 얻었다. 천미희 기자 배지선 기자

불교위원회 발대식

대구 열린우리당

대구 열린우리당이 불교위원회를 결성하고 7월 20일 대구시당 사무실에서 공식 발대식을 가졌다. 이로써 대구 열린우리당 불교위원회는 공식기구로서 대구지역 불교민심을 증상에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원혜사 주지 법담 스님, 김태일 대구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불교계 인사와 당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발대식에서 대구 열린우리당 불교위원회는 전 대구 사원주지연합회 사무국장 이세호씨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대구 열린우리당 불교위원회는 회원 수행정진과 불교문화재 보호, 사찰환경 정화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대구에서 열리는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를 시 지정 문화축제로 승격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발의 계획이다. 또 공원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내의 사찰환경을 조사해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들에 대한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원효 스님 영정 모시기 불사 추진

원효사상실신승가회, 고산사 영정 표준 삼아 제작

원효사상실신승가회(회장 가임)를 중심으로 원효 스님 영정 모시기 불사가 진행된다. 원효사상실신승가회는 원효 스님의 가르침을 오늘에 되살려 바른 법법을 중흥시키고 원효 사상을 중심으로 청년불교운동을 새롭게 일으키고자 영정 불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4년 국내에서는 사라져버린 원효 스님의 저서 <열반경종요> 필사본을 영인하여 국내에 최초로 소개한바 있는 원효사상실신승가회는 영정 불사와 더불어 원효 스님의 사상을 조성해 원효 스님을 세계적으로 소개하는 표준 영정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에 봉안된 것으로 조사된 원효 스님의 영정 12개 중 고산사에 모셔진 원효 스님 영정을 표준으로 삼고, 실제 문중의 골격을 반영한 영정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2004년 국내에서는 사라져버린 원효 스님의 저서 <열반경종요> 필사본을 영인하여 국내에 최초로 소개한바 있는 원효사상실신승가회는 영정 불사와 더불어 원효 스님의 사상을 조성해 원효 스님을 세계적으로 소개하는 표준 영정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천미희 기자

연등축제 회향법회

합창단 연합회창 취임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대성)는 7월 21일 코모도호텔에서 불족 시민연등축제 회향법회 및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올 불족 제행진을 결산하는 자리로 부처님 공양들을 매년 준비해온

성불사에 감사패를 전달한 것을 비롯 개인택시반야회, 부산여성불자회, 부산불교대학 수화반 심어회,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등 제행행렬에 도움을 준 10개 단체에 공로패를 전달했다.

회향법회와 더불어 열린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회장 취임식에서 김귀련 신임회장은 "화해와 화합의 마음으로 한층 더 정진하는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가시는길. 부담되고 싶지 않은 부모마음, 고인이 되더라도 편히 모시고 싶은 자식마음, 이제 안심하십시오. 미래의 여유, 국민상조가 함께 합니다.

리무진 행사차로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최고의 서비스를 단돈 하루 660원으로 해결!! 한달 20,000원씩 99회면 걱정 끝 OK!!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상조이행 보증보험가입"

감동의 서비스 국민상조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행사 진행으로 마치 내 가족처럼 지극한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최상의 서비스와 마음 깊은 친절과 봉사로 최고의 감동을 제공합니다.

경제적인 서비스 개인 행사시의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평소 애용하는 돈으로 불입하여 행사 발생시 최저 비용으로 고객에게 만족을 드려야 누구에게나 양도가 가능합니다. 또한 물가 상승에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크게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서비스 365일 일년 내내 전화상담요원을 배치, 행사 발생시부터 종료시까지 장례에 필요한 사항들을 완벽하게 처리해 드리며, 장례지도사가 그때그때 도움을 드려 모든 부문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심 서비스 세월이 흐르면 물가변동도 예측할 수 없고 행사진행은 제대로 치루게 되는지 불안하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상조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차질없이 모든 행사를 치루며, 규정대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한 걱정은 안심하십시오.

장의 무료서비스(국민상조 회원용)

제 공 상 품	내 용
관	오동나무 1치 5분
수의(순창포 대응직물)	삼배(명주) 세마포
초론, 수시, 염습, 입관, 출상	무료봉사
도포, 원삼, 천금, 지금, 명정, 관보, 결관보(외울베)	무상제공
상복, 굴건 제, 복조끼	무료직계상주
행진, 두건, 작지, 오절, 수절	무상제공 10EA
훈백함, 위패, 습신, 리본, 침지, 운아, 폐백, 다리나경, 입관총관물	무상제공
양초 향, 질신, 축문, 부의록, 선도차 장식	
영정바구니, 근조기, 병풍, 조등, 향로, 촛대, 잔대	무료대여
케달락 또는 장의버스 중 택일	알선서비스(공원묘지, 남궁묘, 장제비신청, 경의버스, 경계역, 이강안내)
특별 무료 전국운행	파견
1급장례지도사 2명 행사도우미 1명	

* 효력 발생은 1회차 불입 후 부타이며 일주일 내 회원증서와 회원카드를 보내드림(본 증서로 원하는 분 누구에게나 양도 가능)
* 회원의 빈소, 손님 접대와 음식, 장지만 준비하시고, 나머지 모든 절차는 저희가 책임지고 내 부모님 모시기 열과 성의를 다해 봉사하겠습니다.(일체의 봉사료는 사절합니다)

KS kookminsangjo
본사 서울시 양천구 목 2동 131-119 KS빌딩 · 팩스 : (02)2654-1414
· 전국 어디서나 1544-4110 · H.P : 011-581-8851(대표 남광일)
· www.kookminsangjo.com · www.kookminsangjo.co.kr · www.국민상조.com